



GEP

Global Empowerment Project

13th Sakyadhita
in Vaishali, India

2013 JAN 3~21

created by

@Lunahmik

1

함께한 사람들



함께한
스님들



명우스님



본각스님



도생스님



도호스님



동건스님



선나스님



성담스님



성문스님



동문스님



성원스님



성해스님



우담스님



원근스님



정연스님



정원스님



지정스님



하이윤스님



현석스님



현준스님



혜민스님

함께한 여성들

GEP 공동교장



조은수 교수님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차장



조정숙 국장님

불교여성개발원 팀장



하현정 팀장님



김경주



김한울



조계연



백은진



사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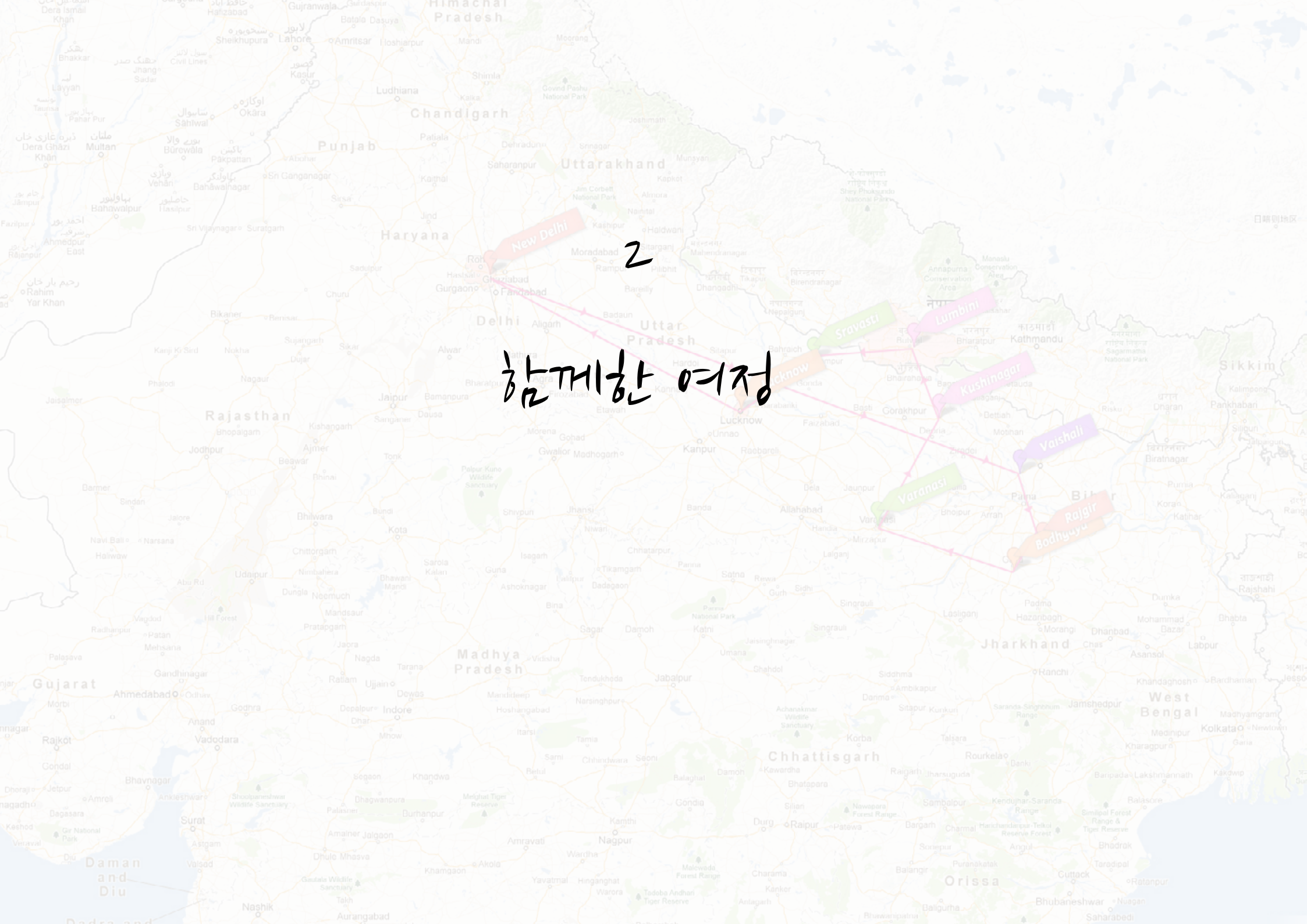
이수빈



이주연



이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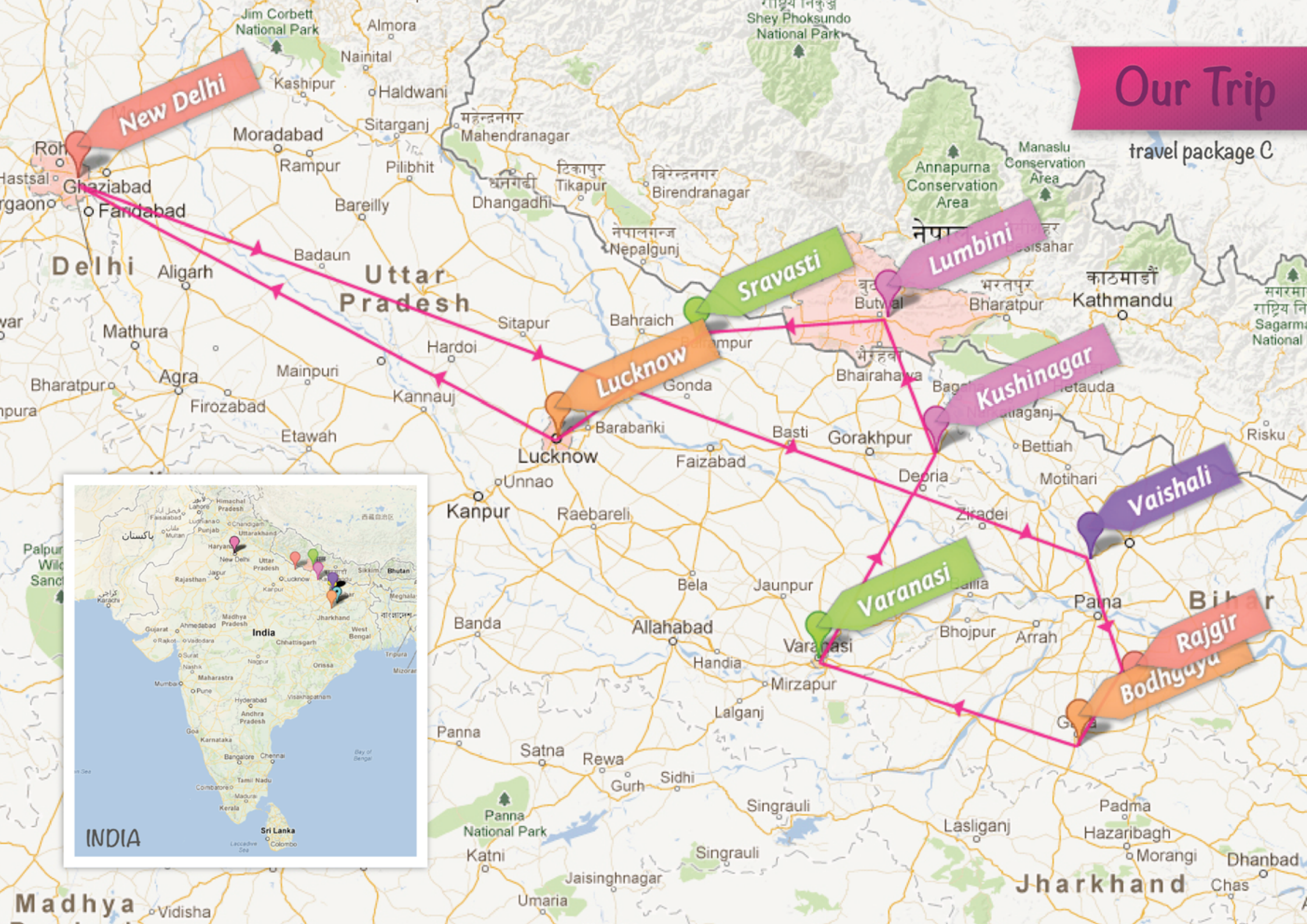


함께하는 여행

2

Our Trip

travel package C





월کم 뚜 인디아

welcome to INDIA

에어인디아 AI317을 타고 델리에 도착했다.
답답한 행정처리가 특징인 인도의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우리를 빼곶했다.
밤 11시나 넘어 모텔인지 호텔인지 모호한 곳에 도착한 우리는,
통역에 대한 고민은 커녕 낯선 곳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다.

pick-up



Patel Nagar에
위치한 모텔,
Aura de Asia



델리와 밤기차

Rajdhani Exp, 3A

등을 떠밀리듯 호텔을 떠나 다람쥐발이었던 델리의 국립박물관을 거쳐,
인도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고기를 먹고 델리 기차역으로 향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밤을 지낸 뒤 파트나까지 달릴 것이다.

patna



녀스님 (플럼발리지)



마이 (9)
주판의 딸인



클론 (3)



사라 (4)





바이샬리가 어디지

안개와 소의 출현으로 아침 5시 도착예정이었던 기차는 오후 3시 30분정도에 역에 도착했다.
기차가 아무리 느려도 같이 탄 인도인들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바이샬리까지는 다시 버스로 세시간정도 가야하고, 우리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컨퍼런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역의 이름은
파트나 다음 역,
Rajendra Nagar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러건지,
여성이라 그러건지,
하여튼 뚫어졌라 쳐다본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마하트라자파티 절은
베트남 사원이다
오후 7시, 드디어 도착!

파트나 역은
그냥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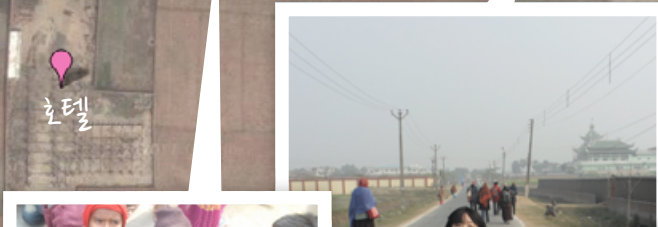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도시

세계 여성 불자 대회인 사카디타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 곳은,
마하프라자파티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출가를 한 곳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도시인 바이샬리는 짙은 안개로 우리를 맞이했다.



마을 입구!





사카디타 컨퍼런스

제 13회 사카디타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치뤄졌다.
GEP의 활약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논문 발표 때 가장 빛이 난다.
두명에서 조를 꾸려 너댓개의 논문을 통역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통역부스 안의 숨소리조차 방송되고 있었던 사실을 사카디타가 끝난 후에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
한국의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무리없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폰으로
통역을 들으시는
스님들



- 오전 06:00 기상
- 07:00 명상
- 08:00 아침식사
- 09:30 논문 발표 후 토론
- 11:30 점심식사
- 오후 01:00 논문 발표 후 토론
- 03:00 차와 간식
- 03:30 워크샵
- 05:00 예불
- 06:00 저녁식사
- 07:00 문화의 밤

6일~10일까지의 일정

통역부스는 10%의 나무판자와 70%의 종이박스와
20%의 비닐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을 고르는 재미

워크숍은 하루에 예닐곱개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데,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공통주제로 모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Dharma & Animals



Studying Translation

Tips for Interpretation



Discussions



게시판에 붙은
워크숍 중이에
이름을 적어넣으면
신청 끝!



Rita Gross

불교 페미니즘을 개척한 수행자



Tara Dance (6days)



예불과 문화의 밤 그리고 맛있는 밥

아침명상과 저녁예불은 매일 서로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치뤄졌고,
매일 저녁 호텔에서 열린 문화의 밤에는 영상이나 공연등을 함께 관람했다.
식사는 절에서 제공되는 베트남식 식사와 현지인이 만들어주는 인도식 중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식 예불



봉경사 새벽 예불 영상을 본 후 뜨거운 반응!



갓 구운 난은
환상적이다!



자이와 커피의 딸인 할아버지



한국 음식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베트남식당



식사 중에도 교류는 계속된다



같이가는 사카디타

우리가 놓쳤던 오프닝 세레머니



Tenzin Palmo



Karma Lekshe Tsomo

christie Yuling chang



숙소에선
내가 가진
모든 옷을 입고
자는 것이 기쁨



인도 방종국의 추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Kolhua

바이샬리의 꼴루아라는 작은 마을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과 그를 지키는 사자 기둥이 있다. 이 곳에서 부처님께서 속세를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설법을 하셨고, 후에 아쇼카 대왕이 거대한 돌기둥을 세웠다.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의 하나로 꼽히는 아쇼카 대왕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세력을 넓혔으나 전쟁의 비참함을 깊이 느낀 뒤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법에 의한 정치를 이상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Dharma

Kutagarshala



Buddha's Relic Stupa



자몽!
파방!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제13회 사카디타 페스티벌

사카디타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나길 기약하며 끝이 났다.
 이제야 안개를 벗어나 또 다른 인도를 만나러 출발한다!
 인도에 도착한지 열흘만에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호텔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사카디타의 뒷 모습



베트남 사원
 스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숙소였던 스리랑카 사원의 비구 스님들



14회 사카디타는 인도네시아에서~



버스를 탈 땐 스트레칭 할 기회,
 화장실 갈 기회를 놓치면 후회!



어딜 가나 항밖에선
 사람들이 반겨준다





최초의 불교사원과 대학

드디어 시작된 여행은 라즈기르 부터!
지난 밤, 사카디타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은 우리는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보시한 최초의 불교 사원인
죽림정사로 향했다.

오늘의 호텔!



venu vana

죽림정사



Nalanda Univ.



날란다의 무수한
서적과 유적이 불에 타
사라진 흔적을 쉽게 그을린
벽들에서 볼 수 있다



옛 침대 자리



보리수잎을 들고





인도에도 산이 있네

무시무시한 케이블 카를 타고 오르는
영취산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자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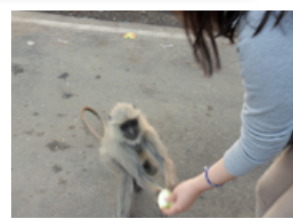
이 자리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최초로 설법하셨던 설법단

vulture Peak

영취산



영취산 정상



인기왕
세보살



Bimbisara's Jail



적연스님





부처님 성지 중에서도 가장 큰 곳

카르마 렉세 쏘모 스님의 노력으로 티벳 불교 카규파의 카르마파를 뽑는 것으로 보드가야의 여행을 시작했다.

웬지 이 곳은 길거리의 개들마저 어딘가 달라보였다.

Sujata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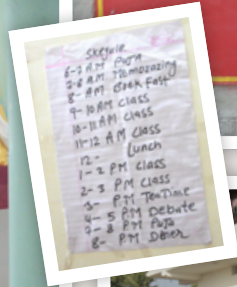
Karmapa



Big Buddha Statue



Sanghamitra Foundation





부처님의 나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바로 앞에는 거대한 탑이 세워져있다.
사원의 벽에 조각된 불상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마하보디 사원엔 모든 나라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여있는 듯 하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해 보았다



Mahabodhi Temple



우리를 환영하듯
달이 밝게 떴다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 곳 Dharma chakra Pravartan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다섯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곳이다. 초전법륜지라고도 일컫는다. 상도선원의 심법스님을 우연히 만나 작은 일탈의 추억을 만들었다.

Dhamek Stupa



고수님의 빈 자리를 열심히 메꾸는 큰 혜인!!



Mulagandhakuti Vihara



이 오색깃발은 국제 불교 깃발!
잘 보면 사자대타나 불교 성지 곳곳에서
이 깃발을 발견할 수 있다



심법스님과 함께 인도 가정식 체험



호텔로 돌아갈 땐 연기 냄새 자욱한 오토릭샤를 타보았다





바라나시에서 뜨는 해

갠지스강에서 탄 해돋이 배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 위로 흘러갔다.
강물에 손을 담그면 힌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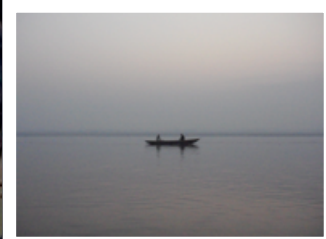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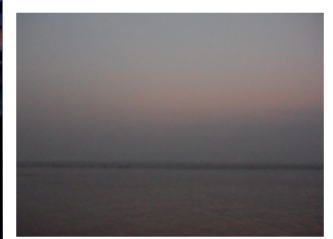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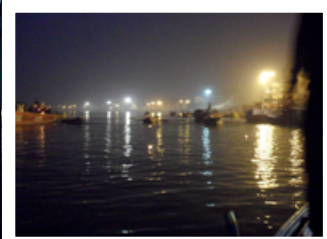
양치하기 귀찮을 땐 닥트리~



저 너머엔 화장터가 있는데,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Ganges River





모든 것은 닻업시다

다만 부지런히 힘써 끝업시 정진하랴

쿠시나가르의 석가모니 열반상이 있는 마하 파르니르바나 사원을 돌아본 후
부처님께서 입멸 전 마지막으로 목욕하신 히라니아바티강 옆 강 가,
화장한 장소인 람바르 불탑을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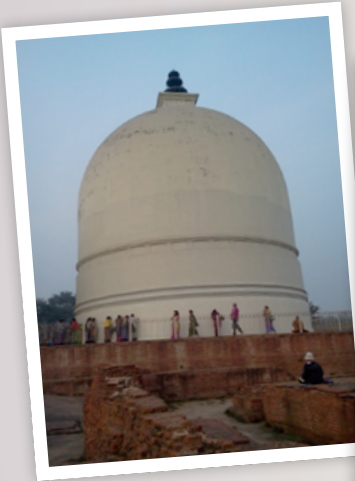
아난다가 부처에게 물었다 '이제 열반에 드시면 남은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걱정 마라. 그대들이 항상 기억하고 찾아와야 할 네 곳이 있다.'

내가 태어난 **룸비니**, 깨우침을 얻은 **보드가야**,

법의 바퀴를 처음 굴린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에 드는 이 곳 **쿠시나가르**이다.

이 네 곳을 순례하며 내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다시 만나 내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나는 늘 거기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리리라.'



이 열반상은 5세기경 쿠타라 굽타 왕 시대의 승려
히리바라가 마투라에서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Maha parinirvana Temple

부처님께서는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을 향해 누우셨다
북서쪽엔 고향인
카필라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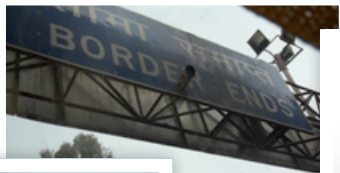


Rambhar Stupa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읊으신 이 말을 종교를 떠나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성지가 어떻든 룸비니만큼은 어떤 곳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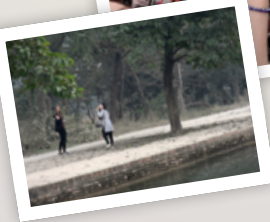


호텔이 좋아서 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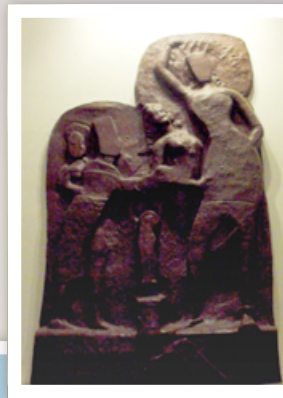
손저울로 무게를 다는
네팔의 라일장수



입구에서 사원까지
보트로 이동~



Mayadevi Temple



처음에 이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 큰 사원에서 나온 유일한 돌이었습니다.



이 곳이 바로 붓다가 태어난 곳이고
바로 이돌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marker stone"



유네스코에서 발굴 중



아쇼카 석주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슈라바스티에 위치한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약 20번의 우기를 지내신 곳이다.
 수많은 제자들과 신자들이 부처님께서 항상 이곳에 머무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알게된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대신할 보리수를 심었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견딘 보리수는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Nature Toilet



자연 화장실은
인도를 여행하는 방법



기원정사

Jetavana Monas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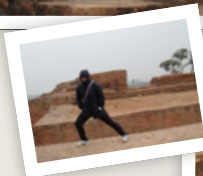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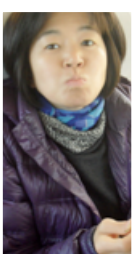
Angulimala Stu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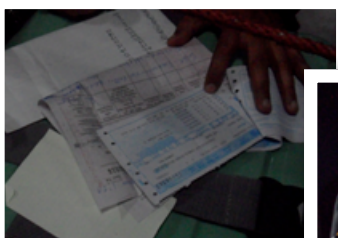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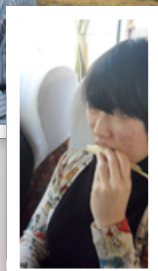
아난 존자가
심었다고 하는
보리수



Lucknow에서 델리로 밤기차를 타고



우리 배스의 가이드 아누쉬(씨)
사탕수수처럼 먹어야 제 맛



보이는
세계공동
반디처럼지





델리에서 쇼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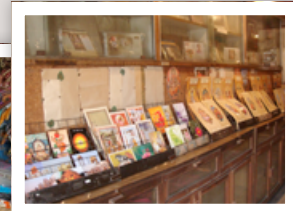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는 내일 밤 출발한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한번도 인도 시내를 구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이드에게 붙어 라지브 초크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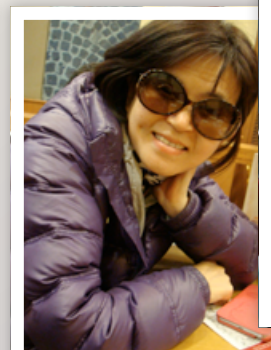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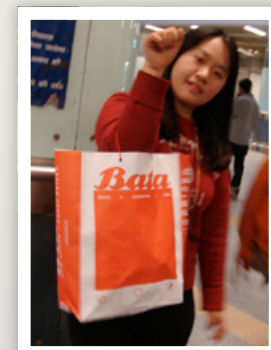
Rajiv chowk



한국으로 치자면 명동!



지하철 내부에선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진을 남겨주기 위해
목숨을 걸어준 경주에게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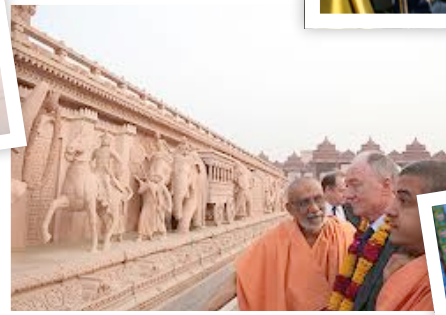
아크샤담 그리고 로투스 템플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은 역시 관광! 체력이 바닥났어도 우리는 관광!
우리의 적응력은 매우 끝내준다. 델리의 교통편을 하루만에 통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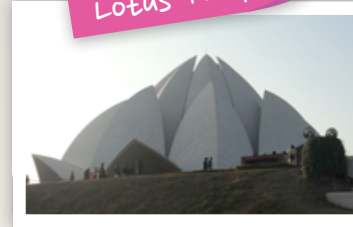
아크샤담은 2000년도에 완공된 힌두교 사원이다
사진촬영은 물론 지갑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맡겨야 한다
신발도 물론 벗어야 한다



Akshardham



오토릭샤를 타고
세계 모든 종교의 화합을 이르는
바하이교의 연꽃사원으로 향했다



Lotus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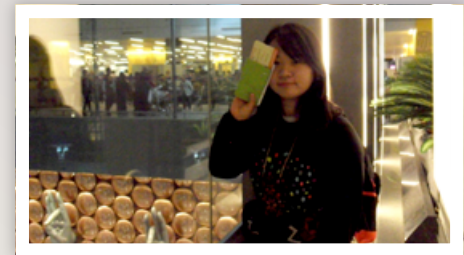
인도의 역사와 힌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코끼리가
148마리나 조각되어있다
부처님 태몽의 코끼리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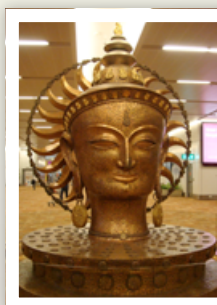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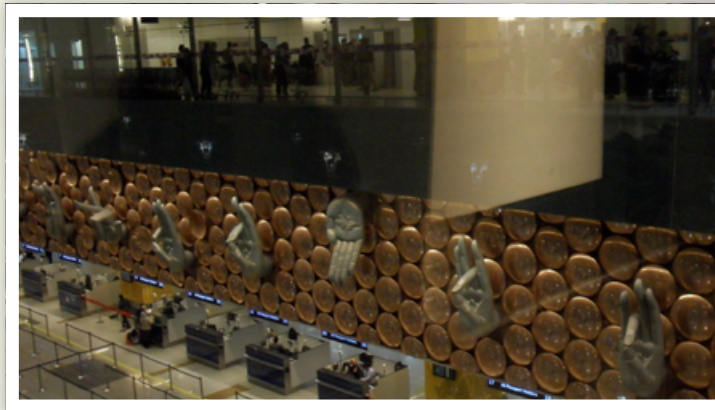


어젯밤에 출발한 비행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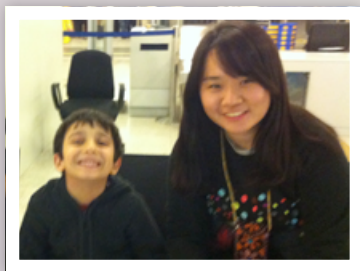
서울을 출발해 서울로 도착했나 싶은 정도로 인도 여행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좋은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또렷이 남은 여행이었다.



이게 얼마만에
먹은 고기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3

함께한 소감

함께한
소감



김경주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3학년 김정주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상도선원에 곧 잘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도선원의 재마스님께서 GEP을 소개해주시며 권유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고 영어 공부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3시간씩 불교 영어와 명상하는 법 등을 배우고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조은수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영어 피드백도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에서 계를 받으신 선준스님을 뵈었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한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선준스님을 직접 뵈고 나니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선미 선생님께서 화통한 성격으로 저희와 매주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저 또한 조금씩 영어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의 막바지엔 봉녕사에서 1박 2일의 템플스테이도 했는데, 다른 템플스테이보다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GEP훈련이 끝이 나고 사카디타의 통역을 하게 되니, 아! 내가 정말 인도에 있구나, 인도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여행할 땐 너무 좋았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정말 힘들다고 잔뜩 겁을 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게다가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귀한 경험까지 얻었습니다. 인도 여행을 함께한 GEP 친구들과 가족같은 인연을 맺게되어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권유해주신 재마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실제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역사가 비로소 나의 역사가 되듯이



김한울

2012년 5월부터 GEP의 일원으로서 영어와 리더십 등의 고된 훈련 끝에 드디어 떠난 사카디타 여정! 이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사카디타인지, 샤카디타인지, 샤카디타인지 이름마저 생소한 학술대회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곤 하지만 사카디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사카디타에서 GEP의 이름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능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따뜻함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베풀러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많은 것을 받고, 배우고, 담아 왔습니다.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지켜보며 식은 줄로만 알았던 내 마음 속의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 몇년간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굴어 오만했던 자신을 꾸짖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 기부가 돌고 돌아 더 큰 열정으로 되돌아오는 곳이 바로 사카디타였습니다.

함께한 소감



박은진

인도에서의 기억은 정말 좋기도 하였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동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히 길은 정리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음식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저절로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도와줄 능력이 없는 나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단 샤카디타 대회에서의 스님들은 너무 미소가 맑고 따뜻했습니다. 보는 내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을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외국에 나가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지 깨닫게 되었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평불만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준 인도 여행이었습니다.



서혜인

불교에 전혀 무지했던 저는 우연한 기회로 제 13회 샤카디타 여성불자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다양한 나라의 스님들과 불자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했습니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스님들과도 대회, 여행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스님들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남자들밖에 없어서 외국인 여성인 우리 일행들을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좁고 열악한 숙소에서도 기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좁고 열악했던 숙소, 대회장의 환경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인도 거리 곳곳에 불쌍한 사람들과 구걸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윤리시간이나 평소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고 배웠지만, 내 앞에 직접적으로 마주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에는 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딜레마에 빠져 생각을 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이번 13회 샤카디타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 더 깊은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혜인

13회 대회 개최지가 바이샬리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망설임 없이 인도행을 결정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는 곳, 최초의 여성수계가 일어난 곳, 유마경의 바로 그 땅. 공항을 나서자마자 한 순간 한 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일정을 좀 더 길게 잡지않았던 것에 후회하며 시작과 함께 이미 다음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성, 불교, 문화간 소통 등 여러 요소들을 기조로 한 회의장의 분위기와 발표내용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습니다. 8일간의 회의가 막을 내린 후 이루어진 성지순례는 내가 바라던 성격의 것과는 정 반대였지만 이런 아쉬움이 다음번에 대한 다짐을 더 강하게 했으리라.

인도는 누구나 철학자로 만들어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이, 현대화 된 한국의 도시 속 삶에서 놓치기 쉬운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에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부처님의 옷자락을 쥐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함께한 여행



참 즐거웠습니다! ^ 7 ^